

기록은 미래를 보는 창과 같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지식의 사다리로서 인류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는 역사의 길잡이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 기록물관리 총괄기관으로서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국가기록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매년 중요 기록물을 수집·보존하고, 국민들께서 기록물을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중요 기록물을 차질 없이 수집하고, 훼손 위기에 처한 기록물의 복원과 복제를 통해 기록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년에는 ‘재난 피해 기록물 응급복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계기록유산인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의 복원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해 한글학회 소장 주시경 선생의 육필원고인 「국어문법 원고」 복제본을 제작하고, 단국대 소장 한미교류 기록물인 「미사일록」 등을 복원하여 우리 원의 뛰어난 복제·복원 기술을 대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맞춤형 기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조에 맞춰 2023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의 누락을 방지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록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록의 전자화 등 디지털플랫폼 기록관리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 기록관리 협력과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설치된 지방자치단체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기록물 보존체계 구축 기반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총회에 참석하여 국가별 기록관리 동향을 공유하고,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ASTICA)의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국가기록원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 등 기록관리 취약국가를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무자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경험과 전문 기술을 전수하였다.

한편, 기록물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에 걸쳐 기록물 열람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동맹을 주제로 한 동영상 콘텐츠 「언박싱 아카이브」를 새롭게 개발하고 특별 사진전을 개최하여, 기록을 통해 오랜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백서는 국가기록원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업무추진 과정상의 고민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추진 방안도 함께 담았다. 따라서 본 백서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무자를 비롯하여 기록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록은 한 국가의 유산이자 세계유산으로 중요 기록물의 누락 없는 수집·보존과 국민적 활용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앞으로 국가기록원은 과거-현재-미래를 이어주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기조에 맞춰 양질의 기록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 기록문화 확산에도 더 많이 기여하여 국내외로 명실상부한 국가기록 총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2024년 11월

국가기록원장 **이 용 철**